

“21세기 통일·화합 시대 열자”

15대 국회 불자당선자들이 밝히는 포부

이번 15대 국회는 21세기인 2000년 5월에 임기를 마친다. 눈부신 문화의 시대가 될 21세기를 여는 중추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어느 국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선진국 진입, 민주주의 가치의 보편화, 민족의 통일 등이 그 과제이다. 새로운 문화의 원동력은 자비와 화합이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불자들의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정·교분리 원칙...정각회 활성화

신한국 김명운 당선자

신한국당 전국구 후보 4번으로 금배지를 달게 되는 김명운 당선자. 5대 민의원과 9대에 이어 18년만에 다시 국회로 진출하게 됐다.

“부처님 가피를 입은 불자로서 포교와 교세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내 종교가 소중함만큼 국가관이 확립된 가운데 불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국가도 불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불교계와 정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에서 벗어난 일로 정부와 불교계 모두 자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교와 정치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가 의원들의 화합의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강조했다. 가족들 모두 서울 성북동 육화사의 신도인 김명운 당선자는 이와 함께 불자의 정각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각선원 심신수양 도량 조성

신한국 권익현 당선자

“불자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로 인해 당선돼 감사드립니다. 15대 국회 의정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치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선원 열거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불사였다는 권익현은 “교리강좌, 정각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불자들의 심신수양의 도량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현은 불교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 모든 불자들이 불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각종 시행·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근 기자>

11·12·14대에 이어 4선원이 된 권익현의원(국회정각회 회장) 국회에서도 “나는 불자요”라고 늘 밝히는 ‘복심불자’로 정광나 권익현은 부처님 가피를 잊지 않는다고 말한다. 15대 국회에서는 특히 불교관련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95년 4월 국회의사당에 정각



“전통사찰 보존법 등 불교관계 약법은 반드시 시행해야지요.”

제 15대 총선에서 전남 보성·화순지역으로 출마하여 첫 금배지를 달게된 박찬주(국민회의, 법명 해룡) 당선자는 정계에서 뚜렷한 불교인의 모습

“불교관계 약법 시정 나설터”

국민회의 박찬주 당선자

을 찾을 수 없었다며 불교관계 문제를 개선하는데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불교학석사에 나가면서 광주 관음사의 운주일법사에 대해 불법을 들었던 것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아침 저녁으로 1백배

진정을 하고 일요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강남 구룡사법당을 찾는다.

구룡사 백고좌법회에 참석한 뒤 불교의 체험세계로 다가갔다고 하며 법화경과 유마경, 금강경 등 경전을 읽고 불자들의 수행방법도 탐독하여 생활의 교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자비넘치는 불국토 구현 최선

자민련 권수창 당선자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불자로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유일한 스님 당선자 권수창스님(자민련·경기 안양 만안갑·법명 법장)은 85년 12월 태고종

합동독도 5기로 출가했다.

“안양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의 친목적인 지지로 당선됐다”는 권수창스님은 “현재의 불교가 문민정부에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래에 들어가면 불교 인식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대때 출마하여 고배를 마셨



로 출가했다. 안양에 인법당인 법안정사를 마련하고 10여년간 법사로 활동해왔다. <김원우 기자>

맑은정치·여성사회참여 주력

국민회의 추미애 당선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세탁소 집 둘째딸이 한국의 썩은 정치를 세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 초발심으로 앞으로 깨끗한 정치를 펼쳐 보겠습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최고의 스타로 부상한 추미애(국민회의·서울 광진) 당선자는 첫 발심을 초지일관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추 당선자는 “10년 6개월의 법조생활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



회참여를 위한 정책입안에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학시절, 방학 때마다 사찰에서 고시공부를 준비한 인연으로 불자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추씨는 동료들과 3천배를 마셨을 때 “해냈다”는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불자의원에 바란다

교계 권익옹호 앞장서길

▲김동훈(중앙신도회준비위원장)은 인명경시와 자연 파괴로 인류가 처한 어려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불교계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불자임을 당당히 밝혀라

▲이원일(전북불교회관 사무장)은 불자의원이란 확고한 신앙활동이 있었을 때 의연으로서도 역할을 해낼 것이다. 불자 당선자들 스스로 신심을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귀와 눈 손발기대

▲이상변(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지역할거구도등 이러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하겠다.

청소년에 관심과 용기를

▲조달현(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 사무국장)은 불교가 몇몇 인사에 의해 유린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정치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올바른 교육정책 세워야

▲김형중(불교교육연합회 간사)은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중 특장점과 관향정책으로 불자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불자선량들이 나서서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되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길 바란다.

15대국회 불자당선자 74명 바로잡습니다

지나호(74호) 1번 기사중 제15대 총선 불자의원 당선자명단은 각 당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사가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집계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종교인이 포함되었기에 직접 전화로 확인해 최종 74명 명단을 다시 정리합니다.

- 신한국당 박법진(서울 양천갑) 이상현(서울 관악갑) 홍준표(서울 송파갑) 서정화(서울 용산) 이재오(서울 은평을) 정의화(부산 중·동구) 정재문(부산 진갑) 김정수(부산 진을) 강경식(부산 동래을) 한이현(부산 북·강서을) 김운환(부산 해운대·기장갑) 김기재(부산 해운대·기장을) 서석재(부산 사하갑) 박종용(부산 사하을) 김진재(부산 금정갑) 신상우(부산 사상을) 이강희(인천 남을) 김인영(수원 권선) 목요상(동두천 양주) 이택석(고양 일산) 안상수(과천 의왕) 전용원(구리) 이용희(용인) 함종환(원주갑) 박우병(태백 정선) 이용선(홍천 횡성) 김기수(영월 평
- 신경식(청원) 강재섭(대구 서을) 김석원(대구 달성) 김운환(구미을) 이상배(상주) 박한기(영천) 김찬우(청송 영덕) 김광원(울진 봉화) 황낙주(청원을) 김태호(울산중) 하순봉(진주을) 허대법(진해) 김영민(김해) 나오연(양산) 권익현(산청 함양) 김호일(마산 합포) 양정규(북제주) 김명운(전국구) 정재철(전국구) <46명>
- 국민회의 추미애(광진을) 이운수(성남 수정) 조성준(성남 중원) 최선영(부천 오정) 조찬형(남원) 박찬주(보성 화순) 배종무(무안) 임복진(광주 남) 박상규(전국구) 한영애(전국구) <10명>
- 자민련 권수창(안양 만안) 이재창(과주) 박신원(오산 화성) 구원서(청주 상당) 변운전(서산 태안) 이규근(서천) 박준규(대구 중구) 김복동(대구 동갑) 박철연(대구 수성갑) 박구일(대구 수성을) 류종수(춘천을) 이인규(대전 대덕) 이양희(대전 동을) <13명>
- 민주당 황규선(이천) <1명>
- 무소속 이해봉(대구 달서을) 임진출(경주을) 황성규(사천) 김용갑(밀양) <4명>

참) 신경식(청원) 강재섭(대구 서을) 김석원(대구 달성) 김운환(구미을) 이상배(상주) 박한기(영천) 김찬우(청송 영덕) 김광원(울진 봉화) 황낙주(청원을) 김태호(울산중) 하순봉(진주을) 허대법(진해) 김영민(김해) 나오연(양산) 권익현(산청 함양) 김호일(마산 합포) 양정규(북제주) 김명운(전국구) 정재철(전국구) <46명>

■국민회의 추미애(광진을) 이운수(성남 수정) 조성준(성남 중원) 최선영(부천 오정) 조찬형(남원) 박찬주(보성 화순) 배종무(무안) 임복진(광주 남) 박상규(전국구) 한영애(전국구) <10명>

■자민련 권수창(안양 만안) 이재창(과주) 박신원(오산 화성) 구원서(청주 상당) 변운전(서산 태안) 이규근(서천) 박준규(대구 중구) 김복동(대구 동갑) 박철연(대구 수성갑) 박구일(대구 수성을) 류종수(춘천을) 이인규(대전 대덕) 이양희(대전 동을) <13명>

■민주당 황규선(이천) <1명>

■무소속 이해봉(대구 달서을) 임진출(경주을) 황성규(사천) 김용갑(밀양) <4명>

시론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김정신을 외치던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경상도에서는 이기택 민주당 고문이 낙선했고, 전라도에서는 김원기 민주당 공동대표가 떨어졌다. 장흥병세가 강원도에서 당선되었지만, 그곳은 3김 정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이었다. 전라도나 충청남도에서 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지만, 그 당선자들의 선거구호는 3김 청산이 아니었다. 오히려 3김을 추켜세우면서 자신이 그들의 현재 또는 미래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풀이하자면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요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역주의가 크게 작용된 것만은 너무도 확연하다. 이런 형편에서 유식한 말로만 지역주의의 타파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맥없는 일인가.

그렇다면 지역주의를 이대로 방치하지는 말아야 한다. 처부수어야 한다. 단지 조심할 점이 있다. 지역주의를 반대하면서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한 또다른 세력주의가 있어서는 안된다. 잘나고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이 힘을 쓰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부수고자 한다면, 그 지역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과, 지역사람들이 자기 방어나 자기 지역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또다른 지역주의 또는 그룹주의가 아니겠는가. 유식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나가는 사람들이 뭉쳐서 자기네끼리 권력을 잡고 세도를 부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지역사람들이 표를



석지명 <천계사 주지>

모아서 힘을 결집하는 것을 어찌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4·11 총선’이 주는 가르침

반 지역주의(反地域主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 지역주의(反地域主義), 즉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 영역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고 억울해 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많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엄존하고 있다. 이 편견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선진’이라고 부르면서 품는 차별감과 유사한 것이다.

나는 노무현씨의 말을 인상깊게 기억한다. “한 지역인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이나 그 지역 사람들 자신의 공연한 피해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김영삼씨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역차별이라는 말이 아니라에서 영연히 사라지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피력한 적이 있다. 또 김수환 추기경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특정지역 출신의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역주의, 지역감정, 지역차별 또는 지역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많이 개선되었고

고객감동!!

고객의 사랑,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G전자

신성시스템이 경진 C&C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Computer & Communications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9 전자랜드 신관 3F 7호
T : 715-8855 (대표), 712-0544

LG 노트북

- Sound카드 및 스피커 내장으로 노트북에서도 멀티미디어 구현
- 14,400bps 초고속 FAX/Data Modem 내장
- 세계최초 적외선 방식의 무선 Trackball 장착
- 착탈식 HDD, LCD, CPU의 사용으로 손쉬운 Upgrade
- PCMCIA Type I, II 지원

486DX2-75MHZ(GN40C7587)

- 기본메모리 8MB
- HDD 340MB
- 9.5" STN COLOR LCD
- PCMCIA SLOT 지원 (TYPE I or TYPE II)
- 무선 Trackball 내장 FAX/MODEM(14,400bps) 내장

486DX4-100MHZ(GN40C0099)

- 기본메모리 8MB
- HDD 540MB
- 10.4" TFT COLOR LCD
- PCMCIA SLOT 지원 (TYPE I or TYPE II)
- 무선 Trackball 내장 FAX/MODEM(14,400bps) 내장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멀티미디어 기능 LG심포니 II

홈 PC

Pentium 100MHZ(GS50H008CX)

- HDD 1.28GB
- CD-ROM 드라이브 4배속 ENHANCED IDE 방식
- 스피커 5와트(채널당) 고품질 스피커 내장 (오디오용 스피커)
- 리모콘 미수신 가능 노레벨싱크기능, TV 비디오 CD 조정기능(비전택점용시)

심포니 II

Pentium 166MHZ(GH53P169EF)

- 기본메모리 16MB
- 비디오메모리 2MB
- HDD 2GB
- CD-ROM 드라이브 6배속 ENHANCED IDE 방식
- 시몬드 카드 PCMCIA 방식의 1600시몬드 카드
- 스피커 10와트(채널당) 고품질 스피커 내장 (오디오용 스피커)
- 리모콘 미수신 가능 노레벨싱크기능, TV 비디오 CD 조정기능(비전택점용시)
- Fax/Modem 내장
- 기본타이틀 9종 제공
- 비전택 (option)

심포니 Tower

- 기본사양
- 기본메모리 8MB
- 캐시메모리 256KB
- 비디오메모리 2MB
- HDD 1.28GB
- FDD 3.5"
- 1/0-PORT, 2510, IPIIO
- 시몬드 카드 PCMCIA 방식의 1600시몬드 카드
- 기본제출 5/W, 한글윈도우 95, V3팩스, 원격서비스 프로그램

<h4>Pentium-166MHZ(GT53H166C)</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ROM 드라이브 6배속 ● 확장SLOT 3P.4 ● Fax/Modem 내장 S/W MPEG제출 ● 비전택(OPTION) ● 나우누리 1개월 무료이용권 ●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 	<h4>Pentium-133MHZ(GT53H136C)</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ROM 드라이브 6배속 ● 확장SLOT 3P.4 ● Fax/Modem 내장 S/W MPEG제출 ● 비전택(OPTION) ● 나우누리 1개월 무료이용권 ●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
<h4>Pentium-100MHZ(GT53H005C)</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ROM 드라이브 4배속 ● 확장SLOT PC13, ISAA ● Fax/Modem 내장 S/W MPEG제출 ● 비전택(OPTION) ● 나우누리 1개월 무료이용권 ●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 	<h4>Pentium-75MHZ(GT53H755C)</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ROM 드라이브 4배속 ● 확장SLOT PC13, ISAA ● 기본타이틀 4종 제공 ● 비전택(OPTION)

모니터

NEW 15" '95 일본 GDR 크릭 특 95일 로우 PC 설정 최 우수 제품 155

- 최대 해상도 1280 x 1024 (MAC 호환)
- 수평/수직 주파수 30~65KHz/50~110Hz
- 한글윈도우 및 아이치엔팅에서 6PPM 고속출력
- GDI(Graphic Device Interface) 기술을 통한 Windows 환경에서 획기적인 드래깅 속도 제공

레이저 프린트

Laserstar 660J+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

- 3000dpi 고해상도 개인용 LBP
- 한글윈도우 및 아이치엔팅에서 6PPM 고속출력
- GDI(Graphic Device Interface) 기술을 통한 Windows 환경에서 획기적인 드래깅 속도 제공